



4면

도교육청, 싱가포르서 해외연수 진행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8월 2일 수요일 (음 6월 16일) 제3318호

대표전화 (063)288-9700



서거석 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권 보호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서 교육감 “교권, 확실히 지키겠다”

“악성민원 차단·교육활동 권한 보장·법률적 지원 확대
상담예약시스템 도입·교육활동보호 조례 개정 등 추진
수사단계부터 법률자문 지원, 교육활동 보호직 신설 건의”

“교사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면서 “교권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일반직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직’을 새롭게 신설할 예정이며,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전담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직원을 말한다. 더불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 개정에도 힘을 쏟았다.

이날 서 교육감은 “약속도 없이 찾아오고 방과 후와 휴일까지 걸려 오는 전화 감성적인 폭언,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인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병들게 한다”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약속 없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상담살애는 자동복화기능을 갖추고, 녹화시 교사의 요구가 있으면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동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민원 시스템과 ARS민원 시스템을 운영해 민원이 접수되면 교장 등 관리자에게 전달돼 적절히 처리되도록 매뉴얼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교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서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징계, 훈육권은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등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명시해 보장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 법 개정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 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했다. 특히 전북도의회와 협력해 교육활동 보호를 확실히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현행 민간보험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 교육감은 “현재 전북교육청은 교육인권조례 제정과 교육인권센터 설립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겠다”면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때 교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판 이전 수사단계부터 법률 자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상담·조사·법률·심리 지원 의지도 밝혔다. 또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에 대한 심리검사 제공도 약속했다.

다. 또 서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교사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호소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교권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막

159개국 4만3000여명 참가... 12일까지 개최

영내·외, 14개 시군 연계 프로그램 등 다채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영)축재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일 시작됐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이하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세계잼버리는 12일까지 부안 새만금 잼버리 부지(8.84km)에서 개최되며, 159개국 4만3,225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를 살펴보면,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 3만150명, 지도자 3,499명, 운영요원이 9,709명이다.

이번 잼버리에서는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추억할 수 있는 다채롭고 흥미로운 과정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인 개·폐영식과 문화교류의 날에는 전 세계 청소년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K-POP, K-댄스 등 다양한 K-컬처 콘텐츠를 각국 청소년들에게 환상

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2일 개영식에서는 스카우트 대원으로 구성된 드림오케스트라단과 세계 각 회원국의 대원들이 대형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협연하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공연이 주제공연으로 열린다. 또한 500대의 드론으로 펼쳐지는 드론라이트쇼를 통해 스카우트의 참시자인 베이든 포웰씨의 초상화를 연출하고, 파이어 아트쇼와 함께 불꽃 놀이가 펼쳐진다.

오는 6일 문화교류의 날에는 다양한 종교의식과 함께 각국 청소년들이 자국의 의상과 음식, 게임, 공연 등을 보여주고 다른 나라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또한 저녁에는 K-POP 콘서트를 열어 종교 인종, 언어의 벽을 넘어 전세계 청소년들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든다.

11일 폐영식에서는 잼버리 기간동안 참가자들의 활동이 담긴 스키치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드림시트 비디

오와 참가국 대표들의 드림시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차기 개최국인 폴란드에 연맹기를 전달하고, 드론 라이트쇼와 파이어 아트쇼, 인기 가수 파달레 공연을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세계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체험 중심의 48종 143개 영내 프로그램과 9종 31개 영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전북도의 14개 시·군의 자연,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8종 30개 지역연계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대나무와 로프를 이용한 개척물 만들기, 로봇과 코딩기술을 활용한 클레스코딩, 재난상황 시 안전한 탈출방법을 배우는 점프타워 챌린지 등과 잼버리장의 특성을 활용한 수상 활동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한지공예, K-POP 댄스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연계프로그램으로는 국립무형문화유산(전주)의 전통문화체험, 왕궁리 유적지 야행(익산)의 역사탐방체험 등 전북 14개 시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청소년들에게 전북도의 아름다움과 대한민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2면에 계속 /김재훈 기자

한옥마을에 양식 등도 허용... 건물 층수도 늘어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는 등 규제 완화 나서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일부 패스트푸드 판매 제한은 유지

전주시가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을 국제적 위상에 맞는 관광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섰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일원에서 허용 음식 품목 및 건물 층수를 완화하는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지난달 28일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전주한옥마을에서는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 건축물 층수도 태조로·은행로지구에 한해 지상 2층이, 전 지구에 지하층도 허용된다. 또한, 6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에 음식점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전주한옥마을. (사진=전주시청 제공)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업종인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점, 제빵점) 및 일부 패스트푸드점(도넛,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이 유지된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시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옥마을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본사 인사

▲임 재 복
임 : 국장
명 : 지방부 완주주재

(8월 2일지)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